

지역 소식통

정읍시 단품미인조합
다양한 품목 유통망 구축

정읍시 단품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다양한 농산물을 연중 출하하며 실속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조공법인은 2015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을 시작으로 물량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사업 물량은 32개 품목 9951톤, 21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조공법인은 공동산별·공동계산을 기본으로 한 수탁방식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가 수취가격과 사업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참여 농가 수 또한 함께 증가했다.

더불어 조공법인은 지난 5월 전북자치도가 평가한 '2023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도비 5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구시포 · 동호
해수욕장 개장 안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해수욕장 개장(7월10일~8월18일)을 앞두고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안전 장비 등을 점검했다.

김철태 고창 부군수는 지난 4일 구시포와 동호 해수욕장을 방문해 해수욕장 이용 시설을 확인하고, 개장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살폈다.

구시포와 동호 해수욕장은 7월10일부터 8월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원활한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협의회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부안해양경찰서,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등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관리 근무인력을 배치하여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로 아름다운 서해안 노을을 조망할 수 있어 일몰 명소로 알려져 있다.

동호 해수욕장은 해안을 따라 우거진 명품 소나무 숲이 장관이며 인근에 국민여가캠핑장이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청년농업인 체계적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카드... 영농현황 · 영농규모 · 제품판로 등 맞춤형

고창군이 신규 청년농업인 유입과 기존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유입 경로와 연차별 지원정책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활동중인 청년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만45세 미만 청년)은 모두 460여명에 달한다.

앞서 고창군 농기센터는 작년부터 '청년농업인 지원카드' 작성해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현황, 영농규모, 제품판로 등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신규 청년농업인과 대를 이어 영농을 이어가는 청년(승계농)들에 대한 현황 등을 작성해 관리 육성해 온 결과 300여명선(2023년)에서 460여명(2024년)으로 증가하여 지원 · 관리폭

을 대폭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청년농업인 상향지원 사업'은 촘촘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농업인 상향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이 끝난 청년농에게 군 자체사업으로 2년간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은 영농초기 토지, 시설 장비 등 정착을 위해 많은 부담을 안고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에게 규모화된 농업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창군만의 특별한 정책이다.

이외에도 청년농의 원활한 농업경영 진입을 돕기 위해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정보화교육, 동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창업 활성화 사업지원, 기업승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등의 순수

군비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드론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청년농업인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이 드론 방제단을 꾸려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와 청년들의 농의 소득을 높이고 있어 1식2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군은 향후 청년농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선배농업경영인과의 멘토-멘티 등 영농인맥을 넓힐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에 진입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 맞춤형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의회는 지난 4일, 제9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퇴임식을 가졌다.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 약속"

고창군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단 퇴임식 가져

고창군의회는 지난 4일, 제9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 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집행부 직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활동 영상 시청, 퇴임사, 기념촬영 등 순서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정례회 5회, 임시회 14회를 진행하면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328건의 의안처리와 47건의 의원 발의를 하였으며, 군정질문 15회, 5분 자유발언 15회, 성명서 발표 17회 등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왔다.

더불어 주요 사업장 점검 62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174건의 개선사항 요구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한빛발전 4호기의 재가동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서 고창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

왔다.

이외에도 정책지원팀 신설과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고창군의회 최초로 은평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고창군의회 공식 SNS(페이스북, 유튜브) 개선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더불어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회 연구단체인 한빛원전 환경안전 연구회와 입법정책연구회 등을 발족하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했으며 어린이 의회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지역의 어린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토론문화의 습득과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임정호 의장은 퇴임사에서 "의정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던 군민 여러분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반기 의회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시민 재산권 보호 지목 현실화 사업 '시동'

1972년까지 주택 · 창고 등 준공된 농지는 전용 절차 이행 없이 지목변경 가능

정읍시는 7월부터 2025년까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에 주택, 창고 등이 건축돼 형질변경된 농지를 전수조사해 지목을 대,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농지란 지목이 전 · 담 · 파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 이후에는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해야 가능하다.

시는 관련 법령 검토 후에 농지법 시행 전인 197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창고 등이 준공된 농지는 전용 절차 이행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날짜 이전 촬영된 과거 항공사진과 각종 행정자료 약 6000여 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안내

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계속해서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목현실화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지목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전북자치도 임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북자치도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선임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산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노선 선정의 적절성 △경관 저해 방지 △재해에 안전하고 산림사업에 활용도가 높은 임도 △사면 및 노면의 안정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이었던 철보면 수령리 간선임도는 총 4km 중 2.7km가 시공 완료된 지역으로, 비탈면 녹화공법, 안정적 인접경사와 노면 상태 등의 시공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용출수 발생 구간에 담수시설을 설치하고, 습지 내 토양을 치환하며 나온 점토질 토양을 사면에 뿌려와 혼합시공함으로써 집적력과 발아력을

높여 훼손된 비탈면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는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2025년 임도사업의 국비 예산확보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화수 시장은 "산불 등 산림 재해 방지나 산림경영의 기능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기능으로서 임도를 활용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인 다기능 임도를 더욱 늘리는 등 임도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부안 쌀 '천년의 숨씨' 농가 교육 집중

부안군은 지난 5일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2024년 부안쌀 '천년의 숨씨' 생산단지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약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천년의 숨씨 계약재배 농가 및 4개 RPC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년의 숨씨 사업설명, 재배 관리 교육, GAP 우수농산물관리 제도) 인증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2024년 천년의 숨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작년과 달라진 내용,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농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

으로 설명됐다.

이어 천년의 숨씨 재배 농가라면 꼭 알아야 할 고품질 쌀을 위한 재배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에서 천년의 숨씨 재배 농가가 필수 이수해야 할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을 통해 쌀 소비 감소로 인한 현실을 체감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RPC의 엄격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